

대중매체가 창조해낸 신화, "서울에어쇼 '96"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 홍보팀장
공군중령 김 규 진



96년 여름의 실종

만 72시간 만이었다.

눈을 뜨니 어느새 늦가을이었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머리맡에 매달려 있는 링

거액과 같은 노란색으로 변해있었다. 결국 내게 있어 성남 비행장 활주로에서 시작된 서울에어쇼 '96은 집 근처 병원의 병실에서 끝난 셈이다.

1차 포스터를 장식했던 상상속의 비행기는 눈이 시릴정도로 푸르른 가을하늘로 사라져 버렸고, 수십만의 인파속에 공통처럼 버티고 있던 전시용 대형텐트도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거되었다.

행사기간 중 PRESS CENTER를 다녀간 1,000여명의 내외신기자들도, 밤새워 국·영문으로 기사

를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하고 등 끝없는 격무에 시달림을 당하던 홍보팀 요원들도 시간의 잔상만 남기고 떠나가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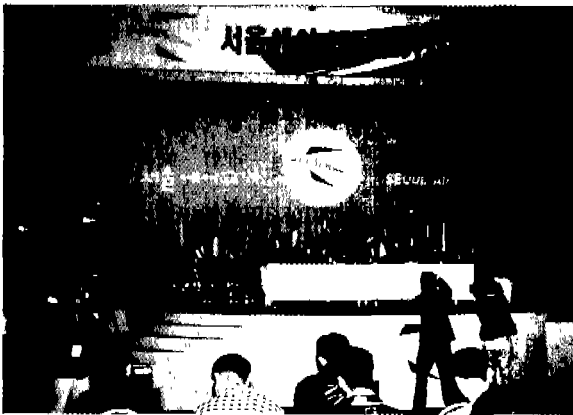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에어쇼를 준비하는 운영본부사람들에게 96년 여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렴풋이 홍수, 산사태, 무장공비 등의 단어만 떠오를 뿐이다. 몇 개월 동안을 일중독증(workaholism)에 걸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하며 하루 3-4시간만의 수면으로 버텨 왔으니.



뭐요? 에어쇼가 뭘니까?

8월초 관공서에 육교현판과 현수막의 설치를 위해 협조차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자기부서의 일이 아니라하여 이리저리 5개 부서를 찾아다니게 만듦더니 기껏 에어쇼 개최의 취지와 의의를 듣고나서 '뽕쇼', '물쇼' 등은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인데 에어쇼란 말은 처음 들어 본다고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 이란 말은 설레임을 주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이다.

에어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100만명을 입장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홍보팀에겐 적지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홍보업무를 맡은 5월 당시 홍보팀은 나를 포함, 고작 2명이었으니 국제적인 행사를 홍보하고 많은 수의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는 전혀 어울

리지 않는 구색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에어쇼에 대한 기초적인 인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어차피 단시간내에 다수의 수용자에게 커뮤니케이터의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채널은 대중매체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광고? 아니면 PUBLICITY?

한국에서 에어쇼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잠재수요자들에게 인지시킨 후 입장권 구매라는 행위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인가?

결국은 광고 효과 모형인

AIDMA(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형의 커뮤니케이션과정을 응용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주의(Attention)를 끌자! 에어쇼 개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기위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기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에어쇼 주최측의 공식적 발표없이 간접취재 형식의 보도만 나간 상태였다.

참가업체수와 예상참가국, 그리

고 참가항공기 등을 소개하기 위한 뉴스거리를 발굴, 기사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사진과 영상자료였다. 싱가포르 에어쇼 장면을 서둘러 편집하고 사진 자료를 구했다. 첫대회이다보니 외국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첫 공식기자회견으로 전문매체에 뉴스거리로 다루어진 에어쇼 개최소식은 일부 관심있는 대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연이어 터져야만 하는 후속타. 이제 서울에어쇼 홍보는 "서울에어쇼 현장에 가면 볼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하고 동시에 자극시킬 것인가? 즉, 에어쇼에 대한 흥미(Interest)를 유발시키고 계속 유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했다. 에어쇼가 단순히 최신예 항공기들의 성능 시범 비행이나 곡예비행만의 행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군의 날 여의도 광장 상공의 공중분열(Fly by)이나 60년대 한강백사장의 폭격시범 정도로 에어쇼를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흥미도를 높이는 1단계 홍보방안은 '최초', '최신예', 그리고 '시범 및 곡예비행'을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언론 역시 Sensational한 뉴스가치를 발굴하려는 특성이 있으니 이에 맞추자는 것이었다. 역시 사진과 영상물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고 더불어

행사운영본부 관계자들에게 Radio와 잡지 등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관심과 흥미가 관람방법, 입장권 구매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요구(Desire)의 수준에 이르렀다. 때마침 8월 중순부터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었고 TV-CF의 방영과 함께 중간보도를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흥미를 유발시키며 관람욕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에어쇼 개최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계속적인 화제거리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에어쇼 개막식과 행사기간 중 선보일 국내 최대의 대형 깃발을 제작중인 호주의 Dave Benson과 협조, 가로 27m, 세로 15m의 깃발을 호주 상공에서 연습낙하하는 장면을 공중촬영한 후 신문과 방송 등에 제공함으로써 에어쇼에 대한 인지도를 지속(Memory)시켜 나갔다.

그러나 정작 입장권의 구매행위(Action)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기의 곡예비행 및 시범비행을 구경하는데 돈을 낼 필요가 있는지와 과거 국



군의 날 행사 때 어느 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 비행장면을 굳이 특정한 장소에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실정은 눈으로 보이는 예매실적을 거의 담보상태로 만들어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다.

언론과 매체의 위력

저조한 예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언론의 관심과 보도로 에어쇼 붐은 조성되기 시작했다. 자동응답전화 회선을 20회선까지 늘렸는데도 새벽까지 전화는 불통.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언론과 대중매체의 위력을 새삼스레 느꼈다. 결국 이러한 대중매체의 힘은 8월 말까지 2,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관람객 수를 무려 55만명으로 불어나게 만들었다. 서울에어쇼 '96이

라는 신화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에어쇼는 결국 국민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초기단계에 강조해 온 최신행 항공기의 시범 및 곡예비행 중심의 행사로 인식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지만 항공우주산업

의 발전과 미래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인식을 도모하기에는 아쉬운 점도 남는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한술밥에 배부르겠는가로 자위하고 싶다.

행사 준비 초기단계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몇 명 안되는 홍보요원과 함께 온몸으로 뛰어야만 한다는 각오로 출발한 서울에어쇼 '96을 널리 알리는 일. 돌이켜 보건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로 이루어낸 서울에어쇼 '96은 신화로 남을 것이다.

"행사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최초의 국제적인 에어쇼를 내가 치루었다는 성취감뿐일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공동운영본부장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올 여름을 실증시켰던 서울에어쇼 '96을 일상 저편으로 넘기고자 한다.

전준용 (BONGO) 10/26

운영의 허점

25일 비가 온 타인지 행사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도 했지만,

운영쪽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

모란역에서 도보로 성남비행장까지 가는길은 비포장도로인데

그도로도 공사장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

그리고 어제 비가와서 모뎀진이 진흙길이라서 통행에 불편도 많았다.

운영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모레나 월단을 깔아 놓으면 좋을텐데...

모란역에서 하차하며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 역을 나가야 하는데

역에는 행사장에 대한 표지판이 없다.

모란역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문에 보면 A4사이즈만한 행사장표지판만 있지

다른 표지판은 볼수가 없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텐데

행사장안에 편의시설이 부족한것 같다. 특히 식수가 없다.

25일부터 청소년도 입장을 하는데 식수는 한잔정도 없는것 같다.

식수를 먹기위해서는 모산원에서 판매하는 식수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국제적행사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 없다니 조금은 실망스럽다

제2회 서울에어쇼는 1회를 바탕으로

확실한 에어쇼가 되었으면 좋겠다.

kwpxx(장경운) 10/28

참음 측세했네!

27일 새벽기차타고 대구에서 상경 해서 너무나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았음. 지방에 있다보니 문화적 혜택을 못 누리다가 큰 맘먹고

보러가서 많은 걸 봐서 후회 안뒤 또한 대구여자가

이쁘다는 말이 있지만 역시 서울애들이 나음

너무 좋아음 좋아음~

강윤식 (KangYS)

어제 에어쇼... 10/28

안녕하세요...강재우입니다.

어제 에어쇼를 갔다왔는데...

마지막날이라 그런지사람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이번 에어쇼는 나쁜 점도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많

은 인파때문에...꼭대비행 및 시범비행은 굉장했구

요.(수호이 37이 굉장했음.)

내년에 열린다면 마지막날과 후일은 피해야지...

네티즌이 본

하이텔, 천리안, 다음

주현 (m61a1)

어제 에어쇼 왔어요.

부산 사는 대학생인데요

10/27

어제 주말을 틈타 상경해서 보았지요.

기대하던 스텔스도 안오고 전시상태도 완전 박문판식이고 - ;

아름다 아저씨들 막 세네살 짜리 얼따들 끌고와가고

앉아서 '저기 비행기 날아간다.' 하면서 사과 꺾어먹고 -

호 블랙이글팀 잘라던데요. 시애라 에어쇼보다 하도도 안짜그러지게 만났었

구. 뭐 도장이 저 미국공군곡예비행단 천더버드즈걸 배김듯해서 좀 글썽만.

쁘카호프 코브라 기동 멋있었어요.

친구랑 카페라 두개 타고와서는 코브라 연속촬영을 했는데

망원렌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 한지 업영

개인적으로 팔콘을 좋아하는데 막 성능을 보여준다면서

이리갔다 저리 갔다가 웃었다가 꺼졌다가 ^^; 기동성은 좋더군요.

블랙이글팀이 쓰는 짐차리도 크기는 작은데 투장능력이 좋고

야 Mitchell 추속 서있었던 이글도 이뻐구

렌서의 거대한 모습도 이뻐구 이파치는 역시 인기가 좋았구

하지만 책으로 보던 다른 나라 에어쇼에 비해 약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 ;

일반인 관람기간에 해서 그런지 에어쇼에 비해 약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 ;

구. 유원지 놀러온듯한 가족들도 많구 ...

2년뒤면 전 군에 있었군요.

쩍 편들 서른여섯짜리 12통 소비했어요 -...;

원제 뺑기만 보면 질질 싸는 놈들이라서 -

그럼 이번뒤 더 나은 에어쇼를 기대하며!

ps.호 월간항공부스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월간항공 광고계시더군요 ^^ 감격

해서 한편났음 (땀날 사는건데 땀)

서병욱 (StomAge)

10/27

어어쇼... 어제 왔는데...

어제 에어쇼 왔어요...

Su-37의 비행은 정말로 말이 필요없더군요...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그런지...코브라 기동을 하면서...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는...Su-37의

참여 솔트 기동... 말이 필요없었습니다. 퍼츠의 단독 곡예비행을

시범비행이 그 어떤 곡예비행보다도 멋있었습니다. 퍼츠의 단독 곡예비행을

할때 Su-37이 바로 뒤를 따르면서 똑같이 따라 한수도 있을것 같더라는

생각까지도... 그렇지만... Pits를 이용한 곡예비행도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스틀턴을 비롯하여... 여타가지의 곡예비행...

그리고... 배편으로 9m 상공의 풍선을 터뜨리는 장면은...(이 장면은

카메라로 찍긴 찍었는데... 얼마나 정확하... 화살... 그리고... 001 후후...

도... 두대가 스쳐 지나가는 것 하며... 어제 왔는데... 정말로 좋았습니다.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팀도... 잘하더군요... 어제 왔는데... 001 후후...

도 예쁘고... 후후... A-37 DragonFly기를 이용해 잘했습니다. 아니...

이번 에어쇼를 아마도 잊혀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영원히...

이번 에어쇼는 잊혀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영원히...

P.S... 이번 에어쇼가 차체에 전투기 기동을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Su-37이 꼭 반드시 잘대로

기밀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타 경쟁 항공기에

비해서 무지하게 싸고 (약 1/3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로 Su-37을 선택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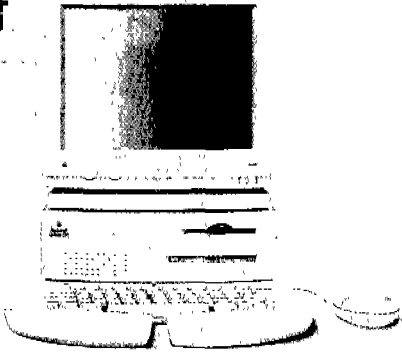
as125(김준호) 10/27

아까 그니까 27일 오전 7시에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청량리역에서 신나게 지하철 여러번
 같이타고 행사장으로 갔죠. 사람들이 엄청 뛰걸레 저한테
 뛰었어요..모두 5명~ 근데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다리는 엄청
 아팠지만 27행짜리 사진은 2종이나 찍었어요.근데 2통도 모자르더 라도요..
 근데 당예요..나쁜꿈이 있더라고요. 먹는곳은 식권을 끊어야하는데 식권 끊는데
 하늘의 별따기~ 또한 먹기위해 줄서 있는것도 하늘의 태양만지가 또 좌강실은 안갔
 지만 좌강실도 줄을 서 있더군요..아주 많이. 그래서 점심을 굶었어요..물론 아친도
 안러었지만요..그래서 일찍 3시쯤에 행사장을 나와서 무슨 편의점에 가서
 라면으로 왔죠..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와~~~~지하철표 끊는데 와~~~~~장난이 아닌데..
 근데말예요..진짜 재미있더라고요..그 웅장한 비행기..탄성이 저절로 나오요..
 2년에 한번씩 한국에서 한다니깐 다음엔 꼭 보세요.
 저도 꼭 갑니다.
 그러던 2년후에 더 멋진 광경을 약속하면서
 그날일 기다립니다..

미약종독(주승현) 10/24
 정말 안타까웠다...기체공학을 전공하는 나로서는...과 친구들이 에어쇼를
 보러가고싶지만...시험기간에 겹쳐 못가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이런 에어쇼라면...우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그런데..이런이런..중간고사기간이라니...다음번엔 재발..
 시험기간과는 겹치지 않도록...꿀짜라구..
 무조건 받아가더니...

미약종독(주승현) 10/24
 내가 이정도 먹구 살 수 있는 것도, 어머니가 아기고 철약해서겠지만,
 우리 어머니들..광물췌이라면 무조건 두장씩 들고보는게.
 게다가 어떤 분들은 전투기 엔진이라든지...정밀부품 전시장에서.
 아주 전문화된 광물췌까지 몇장씩 들고나오니...정.
 보지도 않을 것을 들고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오후들어 지쳐서다니만. 그 광물췌들은.
 결국 갈게로 쓰여지고 버려졌다..

한국인은 클리터~~
 미약종독(주승현) 10/24
 외국에 나가면 동양사람들을 클리터라구 부른다.
 클리터만...사건만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물론..사건만을 하는 사람들이...문제는 추측이다.
 나도 사건만 했다 왔기때문에...배치가 아주아주 복잡하게
 되어있고..게다가 평균 몸집이 큰 진주기에 진주기에 너무 가볍거나 너무
 팔이서키메라로 담기에 무척 힘들었다.
 게다가 F-15, F-18, 아미지 등 관심이 가는 부분에서는..
 미국 초중사가 직접 나와서 들고 싶은 것도
 (다음번엔 통역을 한명정도
 그 옆에 세워주십..))



이이쇼 '97

유니버설을 떠온 관람소감

hl4xe(김유섭) 10/21
 수호이37의 비행모습을 꼭보세요.
 어찌어찌하다 독일 베르린에서 개최되는 항공기전시에서 몇번보았는데
 보고나서 친구들 에게 얘기에 쉼도 밀지를 앓더라고요.
 다음날 친구들을 다 끌고 다시 갈는데 다들 그냥 명-----
 입만벌리고 있다가 눈비비고
 직접보았으니 할말이 없어서
 우리 공군도 수호가 삽시다.
 비행기값도 싸다는데.

ysc23 (최서운) 10/21
 드디어 SEOUL AIR SHOW 표를 구입하였다. 마지막날인
 27일 결코,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재미있을까??
 ?????????????????

ysc23 (최서운) 11/03
 쉘~~~~~
 드디어 쓴다 내가 에어쇼 폐막하는 날
 갔다왔는데 지금 쓰는 것이다.먼저 사람은 많았지만
 무척 재미있었다.하지만 큰 실망이 있다. 전시장 안이
 너무 부실이고,터웠다 또 웨 스텔스기는 안 나오는 줄 모르겠다.
 아무러 국가기민이라도 나온다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또 가아지.97년도가
 98년도에 한뼘오니까